광주 도심이 '들썩'… 충장축제 화려한 팡파르

가족·연인·외국인 관객 등 '북적'
다중인파 사고 방지 등 대비 철저
'남북 소통' 평화통일 부스 개장
6일까지 각종 체험행사 등 '풍성'

개천절인 3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가족단위 시민들이 추억의 복싱 배틀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긴 지난 2일 광주의 대표 축제 충장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쏟아지는 인파와 시종일관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등에 업은 축제의 활력은 부쩍 추워진 날씨를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식은 '추억의 불씨'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 메인 무대에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축제 현장인 금남로·충장로·518민주광장 일대는 가족, 연인, 친구 등 단체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부인, 아들 2명과 충장축제를 찾은 최진수(42)씨는 "광주 시민으로 충장축제를 예년에도 많이 왔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놀거리가 많아졌다"며 "이번 주 토요일에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를 보러 가족과 함께 다시 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친구와 영광에서 광주를 찾은 고등학생 탁정민·이민서(18)양은 "이런 축제가 열리는지 몰랐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개막 기념식 '추억의 불씨'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날 충장축제 현장에선 외국인 방문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3년 전부터 광주에서 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브랜든(31)씨는 이날 혼자 충장축제를 찾았다.

그는 "3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충장축제 현장을 찾았다"며 "평소 취미로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데 축제에서 음악과 퍼포먼스도 즐기고 실력 있는 뮤지션들로부터 영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 온 여행객 부부는 서울, 속초, 경주, 부산, 통영에 이어 이날 광주를 찾았다.

남편 마크(50)씨는 "흥겨운 축제가 광주에서 열리는 줄 몰랐는데 마침 우리가 방문한 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평소 5·18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 광주를 방문했는데 내일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 안젤라(50)씨는 "현지인들에 둘러싸여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특히 파이어 버스킹과 메인 무대에서 열린 콘서트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남로 1가 거리에는 감성 가득한 '충장 보이는 라디오' 무대가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하나같이 추억 속에 젖은 표정을 짓고 화면을 통해 지역 예술인 라이브 밴드 및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민주평통 광주 동구협의회가 주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평화통일 부스 오픈식도 눈길을 끌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북한 음식체험이었다. 북한이탈주민 이은희씨가 '속도전 떡'이라는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직접 시식할 기회를 제공했다. 북한에서 떡이 가진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남북한이 음식문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 김모(43)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북한 음식을 먹고 탈북민들의 공연을 보니 그들의 삶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해 더 생각해볼 기회가 생긴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금남로 2가 일대의 '정열의 거리'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축제 현장에선 2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다중인파 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의 철저한 대비를 엿볼 수 있었다.

금남로·충장로·518민주광장 일원은 수많은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방문객들을 상대로 일방통행 안내가 이뤄졌다.

경찰, 소방, 동구 공무원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등 수많은 봉사인력이 함께 상시 대기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김용일(52) 해병대전우회 광주북구지회장은 "시민들이 무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병대전우회에선 매년 충장축제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행사 기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방문객들이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남 벼멸구 피해 '눈덩이'…'농업재해 인정' 촉구

1만9603ha 피해…여의도 면적 68배
김 지사 "특별재난지역" 대정부 건의

수확기를 앞두고 전남지역에 '벼멸구'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지역 피해 면적만 1만9603ha에 달하면서 전남도와 지자체, 농민단체 등은 정부에 농업재난재해 인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 면적은 1만9603ha로 추산된다. 지난해 피해 면적(175ha)의 112배, 여의도 면적(290ha)의 68배에 이르는 규모다. 최근 5년 간 평균 피해 면적(3876ha)보다도 5배나 많다.

올해 전국 피해 면적(3만4000ha)의 57.6%가 농도(農道) 전남에 집중된 셈이다. 지난달 22일 6696ha이던 것이 2주일 새 3배나 증가했다. 태풍이 지나며 기온이 떨어졌음에도 확산세는 이어졌다.

막대한 피해에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쌀값이 지난해 10월 21만222원을 정점으로 11개월째 하락해 9월 말 기준 17만4592원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벼멸구와 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남, 영암, 강진, 장흥 등 주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폭염과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 수확기 전에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 고온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충 등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전남 벼 재배면적의 13.3%가 피해를 입었다"며 "폭염에 따른 병해충을 재해로 인정하고 산지 쌀값 20만원 유지와 수급 안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올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피해조사 등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실질적 재해 인정과 구제대책을 미룬 채 피해벼 매입 계획만을 발표한 것은 농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실질적 지원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벼멸구 피해 조사와 함께 정부의 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오지현 기자

합 병 공 고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

합병회사 주식회사정원푸드(이하 "갑" 이라 함)와 피합병회사 주식회사청담유통(이하 "을" 이라 함)은 2024년 10월 0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 은 "을" 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갑" 과 "을" 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 과 "을" 의 회사에 각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 주식회사 정원푸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로길7번길 29(지죽동)
대표이사 정병주

"을" : 주식회사 청담유통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163(수완동)
사내이사 박현석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예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직통 (062)519-0710
팩스 (062)519-0709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